

(주)한일사료가 추천한 춘추농장



생산에서 유통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 경기도 양주 춘추농장

>>> [취재 현시영]



▲ 춘추농장 허종태 대표와 한일사료 직원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에 위치한 춘추 농장은 성계 16만수, 병아리 6만수로 총 22만 수 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농장에 진입하기 전 함께 동행한 조희석 부장은 신발위에 신는 비닐을 건내며 “허종태 사장님 농장은 외부인이 출입할 때 꼭 이걸 신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허종태 사장은 농장 내·외부의 소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농장에 들어오는 사료공급 차량도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위생에 신경을 쓰

고 있었다.

축사부지만 7500여평이고 성계 사는 3동이며 1동에 평균 6만수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 춘추농장의 외부모습에서 허종태 사장의 깔끔함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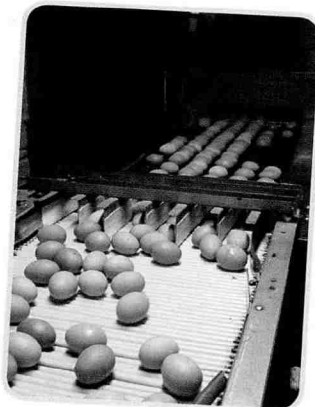
허종태 사장은 계사의 케이지당 5마리씩을 넣는 것이 적당하지만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케이지에 더 많은 닭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이익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닭들도 그 사이에서 서열이 있기 때문에 사료를 더 많이 먹는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생기고 사료를 적게 먹는 닭은 알을 적게 낳는다고 말하며 결국 손해로 이어진다고 한다.

전 계사는 무창계사로 생산라인이 모두 자동화되어 사료의 급이와 환기가 모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라인별로 계란이 모여져 선별장으로 바로 이동되고 있었다.

농장의 총 직원수는 11명이고 일일 12~14만개의 알을 출하하고 있다.

허종태 사장은 이런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으로 직원 수는 그대로이지만 작업이 수월하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자동화 시스템으로 알 크기별로 분류되어 컴퓨터로 생산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 창 이 언 지 ☎ 042) 931-6625 P-2..		
왕란 68.0g↑ (80.0g) ☐ 5 8	특란 58.0g↑ (0.0g) ☐ 6	대란 52.5g↑ (0.0g) ☐ 3
67개 47% 4.845Kg	70개 50% 4.500Kg	3개 2% 0.167Kg
중란 45.0g↑ (0.0g) ☐ 2	소란 42.0g↑ (0.0g) ☐ 1	경란 42.0g↑ (0.0g) ☐ 7
0개 0%	0개 0%	0개 0%

춘추농장은 한일사료를 쓴지 1년 정도 되었고 현재 산란율은 90% 정도라고 한다. 한일사료를 전량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료회사와도 거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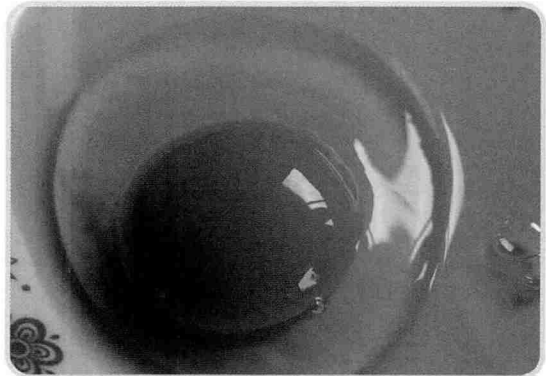
함께 동행한 조희석 부장은 농장규모가 커지다 보면 한 제품만 가지고 썼을 때 계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업체의 사료를 쓰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하며, 두 사료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종태 사장이 경영을 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사료의 산란계전용사료인 매직사료는 89년도에 일본의 양계전문업체인 JRC와 기술 제휴로 개발한 특수사료다. 허종태 사장은 한일사료를 쓰면서 산란율이 올랐다고 한다.

조희석 부장은 한일사료는 옥수수와 대두박, 밀 글루텐 등 닭들이 가장 좋아하고 영양성분도 높은 원료를 많이 써서 사료단가가 비싼 편이지만 산란률이 3~5% 가량 올라가고 계군의 지속기간이 길어지는데 그것은 곧 농장의 수익이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하며 10년 이상 꾸준히 거래하는 농장들이 많다고 한다.

사료는 하루에 20t씩 한달 600t 정도를 급여하고 있다. 춘추농장은 다른 농장과 다르게 따로 사료공급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허종태 사장의 꼼꼼함 때문이다.

한일사료를 이용하기 전에 거래하던 일부 사료회사의 사료에 껌데기가 많이 섞여있었고,



▲ 홍삼을 머금은 <사포란>. 다른 계란에 비해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다.

때문에 산란율이 떨어지고 폐사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후 춘추농장 전용 사료공급차를 구입해 공장에서 사료를 직접 확인하고 농장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료업체차량이 여러 농장을 다니기 때문에 질병 문제에 있어 안전성을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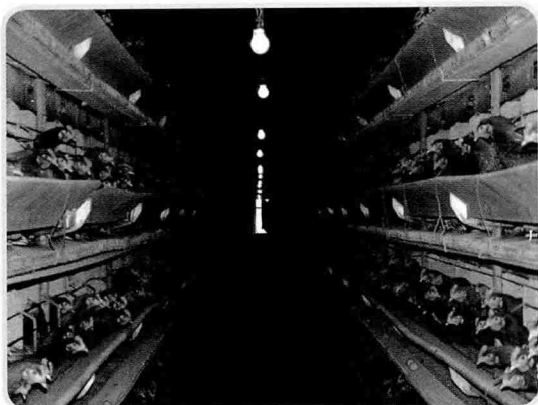
허종태 사장은 홍삼을 먹여 생산한 <사포란>이라는 브랜드로 특허까지 냈다. 사포란은 다른 계란에 비해,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낮은 것이 특징이며 유난히 껍질의 색깔이 진하고 노른자가 탄력이 있어 한눈에 보기에라도 싱

싱함이 느껴졌다.

생산된 계란은 도매와 직거래로 출하하고 있다. 현재 서울 마포에 계란도매유통을 겸업하고 있는 허 사장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의정부, 동두천 지역의 개인마트, 아파트 알뜰장 등에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유통마진을 줄이고



▲ <사포란> 광고 카탈로그



▲ 무창계사 내부 모습

있다. 지역 TV에도 광고를 내고 있는데, 현재 다른 브랜드도 2~3개 정도를 더 만들어 일부 농가와 공동판매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허종태 사장은 사실 농장경영을 한지 4년밖에 되지 않았다. 원래 건축업을 하다 IMF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계란유통을 시작했다고 한다. 계란유통을 하면서 생산까지 직접 해보고 싶어 조류독감이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던 2003년에 이 농장을 맡아 경영하고 있다.

처음 계란유통업을 할 당시 개성상인이란 책을 읽고 신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허종태 사장은 도(道),의(義),약속 이 세 가지만은 꼭 지키자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런 다짐이 밑거름이 될걸까? 농장경영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때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허종태 사장은 작년 후반기부터 사료값이 안나올 정도로 계란단가가 떨어졌었지만 그동안 거래했던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평소 수익의 일정량은 적립해 두는데 어려울 당시 힘이 되었다고 한다.

닭에 대한 애정 또한 깊은 허종태 사장은 정성 들여 키운 닭을 뺄 때는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계사에 내가 돌아다니면 닭들이 알아봐요. 닭을 쓰다듬으면서 알 많이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요. 애써 키운 만큼 모든걸 주잖아요. 버릴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농장경영에 있어 성급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03년도에 조류독감의 여파로 알값이 올라 이익을 보고 계군을

늘렸던 농가들의 예를 들며 그때 무리하게 계군을 늘렸던 농가의 50~60%는 빛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투자를 할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내에서 해야지 남의 말만 믿고 선부른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뼈있는 말이었다.

그 동안의 수 많은 시행착오들이 현재 허종태 사장의 탄탄한 경영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이루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은 느긋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누구보다 정확한 선견지명으로 허종태 사장은 밝은 내일을 내다보고 있다. 5